

올시즌 프로야구 신기록 풍성



200 승 통산 최다승

〈한화 송진우〉



43 세이브 시즌 최다세이브

〈삼성 오승환〉



신인 18 승 최다승 타이

〈한화 류현진〉

마운드 잇단 '풍년가'

류현진, 선동열이후 '트리플 크라운' 도전

삼성거포 양준혁 통산최다안타 1,942개

'그라운드 기록 모두 바뀐!' 송진우 25년째를 맞은 한국 프로야구...

오승환이 남은 9경기에서 지난 해 일본 프로야구의 이와세 히토...

더욱이 류현진은 시즌 196탈삼진으로 사상 첫 신인 200탈삼진 고지 정복에 4개...

백차승 시즌 4승 쾌투

텍사스전 6.20이닝 2실점 5K 백차승(26·시애틀 매리너스·사진)이 시즌 4승을 올렸다.

기록할 정도로 재구력이 좋았다. 특히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뒤 텍사스를 상대로 3경기(21.2이닝 투구)...



백차승 시즌 4승 쾌투

양용은 정교한 퍼트 "감 잡았어"

한국오픈골프 1R 세계랭킹 6위 구센과 공동 선두

일본프로골프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양용은(34·케이지디자인)이 세계골프 랭킹 6위인 레티프 구센(남아공)과 코오롱-하나은행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 첫날 공동 선두를 달렸다.

10번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양용은은 첫홀부터 3m거리의 기본 좋은 버디퍼트를 성공시킨 뒤 14번홀(파4)에서는 티샷이 벅기에 빠졌지만 깔끔하게 걸어내 깃대 2m 거리에 붙이면서 버디를 추가했다.

구센은 330야드 길이의 6번홀(파4)에서 과감한 드라이브샷을 시도, 볼이 그린을 훌쩍 넘어 주변 러프에 떨어졌으나 15m 거리의 칩샷을 그대로 홀에 떨어뜨려 이글을 잡아내는 등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4개를 속아냈다.



21일 충남 천안 우정힐스골프장에서 열린 코오롱-하나은행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양용은이 18번홀에서 벅기샷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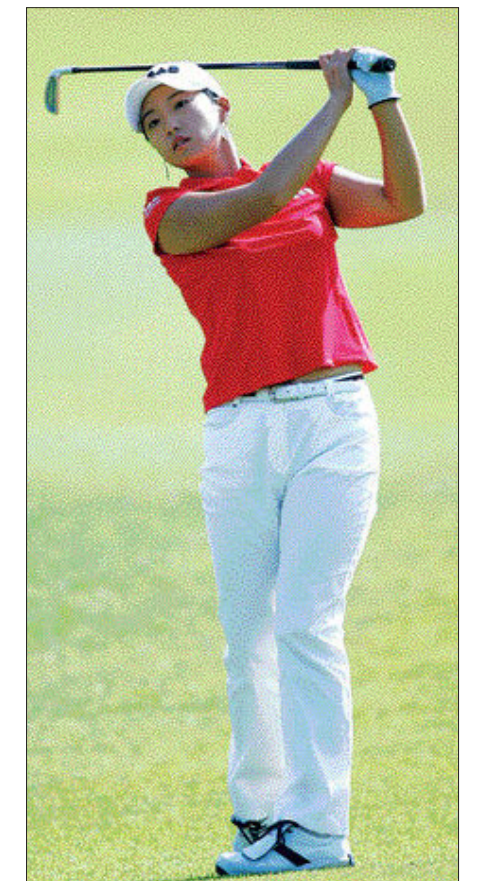
홍란 생애 첫 우승 눈앞

13언더파 단독 선두

한국여자프로골프선수권 2R

프로 2년차 홍란(20·이수건설)이 생애 첫 우승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홍란은 21일 경기도 여주시 자유골프장(파72·6천441야드)에서 열린 신세계제 제28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선수권대회 2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중간합계 13언더파 131타로 이틀 연속 단독 선두를 달렸다.

홍란이 주춤하는 사이 지난해 ADT캡스 챔피언십 우승자 김혜정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뛰다 잠시 귀국한 장타자 이지영(21·하이마트) 등이 몰아치기에 나서면서 홍란은 순위표 맨 뒷자리를 내줘야 했다.



21일 경기도 여주시 자유골프장에서 열린 신세계제 제28회 한국여자프로골프선수권대회 2라운드에 출전한 홍란이 1번홀에서 세컨샷을 하고 있다.

'중간계투' 박찬호 26일 팀 복귀

장 출혈 수술 후 15일째리 부상자명단에 올라 있는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다음 주 볼펜진에 합류한다. 샌디에이고 홈페이는 21일 브루스 보치 감독의 말을 인용해 박찬호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원정 3연전이 시작되는 오는 26

일 팀 로스터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치 감독은 "박찬호는 올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때 볼펜에서 잘 던졌다. 그가 (다음 주) 팀이 원정에 나갈 때까지 준비가 될 것"이라며 박찬호의 복귀를 기정사실화했다.

보치 감독은 이어 "그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체중도 불었다"며 박찬호가 팔꿈치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던 스코틀랜드와 함께 최근 부상으로부터 더그 브로케일의 불펜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치 감독은 앞서 지역 신문인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뷴'과 인터뷰에서도 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면 박찬호를 중간계투로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